

# 건물주 반대에 설치 못한 스프링클러... 예견된 인재

##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 운영자 스프링클러 신청  
건물주 동의 안해 설치 무산  
시 "사유재산이라 강요 못해"  
고시원 화재 사각지대 '재조명'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기자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은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

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용직 근로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22곳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2곳의 고시원에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고시원 한 곳에 약 70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셈이다. 화재가 발생한 국립 고시원 운영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고시원 운영자가 해당 사업에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시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며 "소방안전 대책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을 빼고 적용돼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기존 강화는 물론 소급 적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7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 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건축·전

기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을 종합 점검해 화재 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립고시원은 올해 진행되는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고시원 등은 내년에 실시되는 2단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7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단계 조사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며,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대상업종별 현황'을 보면 600㎡ 이상인 고시원 15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가 여러 종류"라며 "그중 고시원은 2단계에 포함돼 있다. 1단계 조사는 70%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수능 시험장 가는 길' 대중교통 전폭 지원

## 서울시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마련 지하철·버스 증회, 비상수송차 지원



수험생수송지원차량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능 시험은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진다. 서울에서는 11개 지구, 208개 시험장에서 13만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등교시간대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택시부제해제, 비상수송차량지원 등에 나선다. 우선 시는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평상시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 횟수를 28회로 늘린다.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을 16편 대기시킨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오전 4

시부터 낮 12시까지 택시 1만6000여대를 추가 운행한다.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90대가 수험생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한다.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한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수험생이다. 등교시간대 교통혼잡에 대비해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80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수험생 주변과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된다. 이들은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시는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험생 인근 공사장 소음 자제,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사전에 요청했다. 각 자치구는 시험장 주변을 순회하며 소음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금지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3만여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교통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응원 차원에서 수험생을 찾는 가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교통대책 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지하철 안전 홍보관 모습. /서울교통공사

# 7호선 반포역 '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안전홍보관 헬스&라이프케어존 등 선택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복합문화 생활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반포역 지하 1층에 헬스&라이프 케어존과 지하철 안전 홍보관의 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헬스&라이프 케어존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피트니스센터, 스터디 카페, 여행사 운영 여행 정보 카페, 무인 세탁소가 입점해 있다. 공사는 반포역 일대가 주거 밀집 지역인 특성을 고려해 역 상가를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개발했다. 키즈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안전 홍보관은 지하철 건설, 운영, 사고, 안전 시스템, 미래 안전 시스

템, 게임, 7개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연면적 220㎡ 규모이다. 건설존에서는 하지 터널 지하철 구간의 입체 단면도와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구조모형을 볼 수 있다. 케도 실물, 안전시설 유물, 시대별 전동차 모형도 전시됐다. 서울 지하철 사고 유형도 연대별로 전시돼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상황실, 승강장 안전관리 관제 시스템 등도 볼 수 있다. 안전 체험 오락기도 마련됐다.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설비를 확충했다. 공사는 이달 초 기관사 양성용 전동차 운전 체험기를 설치했다. 체험기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으며, 운전 방식별로 3대가 설치됐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非유럽' 최초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장도시 선출

서울시는 도시조명분야 세계 최대 글로벌 협력체인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의 회장도시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이자 비유럽 도시 최초로. LUCI에는 전 세계 44개국 70여개 도시, 4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LUCI는 세계 도시 간 조명정책과 신기술 등을 교류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협력체다. 아시아에서는 서울, 오사카, 상하이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도시조명 정책과 기술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역대 회장도시의 주요 활동을 파악, LUCI 본부와 회장



LUCI 신입 회장단과 집행위원 모습. /서울시

도시의 역할 수행 방법, 범위 등을 사전 조율했다. 시는 LUCI 회장도시로서 2년 임기 동안 공식행사인 집행위원회의, 도시집중 탐구회의, 연례총회 등을 주재하게 된다. 국제기구·지방정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 LUCI 비

전과 도시조명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 우수한 도시 조명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국내 조명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동북아 최고 '바이오의료 도시' 꿈꾼다

'바이오의료 국제 콘퍼런스' 개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 주제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심지, 서울'이다. 콘퍼런스에서는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벤처 도시에 도전

하는 서울의 미래전략과 바이오 창업 성공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기업 오비메드의 에레즈 치모비츠 투자총괄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 창업 트렌드 및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이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아시아태평양 총괄대표인 댄 왕이 '바이오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현정 기자